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눔은 사랑입니다

WINTER

2021 Vol. 83

#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2021년 11월 29일 발행

발행인 신희영

편집책임 이양화

편집 장진호, 지수희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kmdp@kmdp.or.kr

홈페이지 www.kmdp.or.kr

## 03 협회장 인사말

## 04 전문가 칼럼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의 현황과 향후 과제

-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KMDP 기획홍보위원장

## 사랑을 나눕니다

## 08 당연한이까요.

일치하니까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 기증자 민경인

## 10 우리의 한 걸음이 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삶의 의지가 됩니다. - 기증자 장원석

## 항상 고맙습니다

## 12 기증자님의 따뜻한 뜻을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 수혜자님의 따님 심지연(가명)

## 14 기증자님, 한 가정의 생명을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혜자님의 어머님 박명희(가명)

## 현장 STORY

## 16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 18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 기증자 차규락 (보건복지부장관상, 동영상부문 대상)

## 20 엄마에게 기증자 - 박태현(수기부문 대상)

## 24 나의 기증 신청 이야기 - 기증희망자 이재원(웹툰 부문 대상)

## 26 조혈모세포 기증, 현혈처럼

- 기증희망자 문희정(그림 부문 대상)

## 28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KMDP 온라인 기재단

## 30 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조혈모세포 기증,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식조정1팀 심소형 코디네이터

- 취재: 배유진, 배지원

## 32 자부심을 가지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주세요.

- 충남대학교병원혈액원 이수진 코디네이터

- 취재: 김희진, 배유진, 이경림

## 34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이식 및

질환의 완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이지민 코디네이터

- 취재: 이경림

## 36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은 언

제나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아암NGO한빛 송민정 사무국장

- 취재: 김나연, 정나해

## 39 KMDP 온라인 기재단 2기를 소개합니다

## 좋은 소식 전합니다

## 40 KMDP NEWS

## 42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 43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 44 역대 기증자 명단

## 46 조혈모세포 기증Q&A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48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 49 후원자 명단

## 50 도움 주시는 분들

## 51 개인정보 변경 및 헌혈증 지원 안내

## 따스한 마음으로

## 소중한 나눔의 손길을 내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신희영

신 희 영



2021년 한 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할애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과 기증에 동참하여 우리를 생각하고 숭고한 생명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주시는 여러분들은 혼돈의 이 시대를 지탱해주는 영웅이십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느덧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6천여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며, 38만 여 명의 기증희망자가 생명나눔의 약속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후원으로 도움의 손길 나누어 주시는 개인 후원자 및 후원사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혈액암 환자 지원사업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대신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을 실시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그리고 수혜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시선을 통해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으며, 이식 후 건강한 생활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의 사연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응원과 격려의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자 예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주신 모든 기증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에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의 현황과 향후 과제

●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KMDP 기획홍보위원장

2020년 3월에 선언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팬데믹(감염병 세계유행)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마치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이다. 동거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급적 피하고 거주지 밖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만나고 모여야 하던 여러 영역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다. 학교도 직장도 종교기관도 나오거나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해결하게 되고, 식사, 쇼핑, 체육단련, 문화 활동, 유흥 등 기존의 좋았던 상황에 맞추어 마련되었던 시설들이 이용 중단이나 이용자 수 제한 등의 지장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활동의 키포인트인 생명나눔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생명나눔운동이라 하면 그 종류로서 헌혈자 모집(recruitment)과, 인체조직 · 조혈모세포 · 제대혈 ·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모집과 등록을 들 수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

은 헌혈자 모집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헌혈자 수는 2015년에 3,082,918명의 역대 최대 헌혈이 이루어 졌는데, 2015년 하반기에 발생한 MERS(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이동 제한조치로 헌혈자수가 감소하여 2016년~2019년까지 사이에 매년 280만 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에는 26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헌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단체헌혈 외에도 160개의 고정된 장소(헌혈센터·헌혈카페)에서 하는 헌혈도 있어서 기본적인 규모는 유지하였던 헌혈자 모집과 달리, 기관을 방문하여 하거나 가두에서 이루어지는 조혈모세포(제대혈 제외) 기증희망자 신규 등록은 2015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매년 17,000~19,000명에 비해 2020년에는 정부로 받은 예산 중 미집행 잔여 검사비를 반납해야 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당연하여서, 세계적으로도 WMDA(World Marrow

Donor Association)에 등재된 연간 신규 등록 조혈모세포(제대혈 제외)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9년 한 해에만 314만명이 등재되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228만 명만이 신규 등록되었다.

헌혈자 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혈액원은 기존에 해오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헌혈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헌혈의 유용성을 홍보하기 위해 헌혈센터·헌혈카페 안내 앱 보급, 헌혈자 픽업서비스, 사전 전자문진, 혈액검사결과 간편 조회, 헌혈 서포터즈 활동, 헌혈증서 뱅크 운영, 헌혈기부권 기증제도, 사회공헌 연결지원 등의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신문방송 뿐만 아니라 social network service 나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한 타겟층 홍보로 다원화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장소와 홍보방법도 다변화하였다. 자체 헌혈센터에서 주로 모집하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고정된 모집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도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마음혈액원의 협조로 5개의 헌혈카페에 모집 데스크를 설치하여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기증을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등록을 받는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최근에 협회가 실시하였던 '2021년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동영상, 웹툰, 수기, 그림을 공모하여 좋은 작품을 선정한 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홍보하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기증희망자 모집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목표인 17,000명의 모집 인원 달성을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비롯한 모든 등록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헌혈자 모집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산업보건협회 혈액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혈액을 순수한 헌혈로 자급할 수 없음을 직감한 정부의 체계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헌혈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격려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한편, 의료기관에 수혈관리 조직을 설치해 하여 수혈용 혈액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적응하여 환자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

으로 모색하고 구현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년 모집하는 기증희망자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며, 모집 대상자의 연령을 18~35세에 집중해서, 전체 기증희망자 pool의 18세~35세 연령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증희망자 등록 연령을 만18세~40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만39세에 등록을 하더라도 55세까지 15년간은 기증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도 기증희망자의 제한연령은 만40세미만이지만, 18세~35세의 기증희망자를 선호하여 주로 모집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증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기증한 조혈모세포의 이식 후 장기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식 의료진에 의해 실제 기증자로 선택된 기증자의 75%는 18세~35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 누적 등록자수 21만 명 중 18~34세의 비율은 79.7%였는데, 2015년에는 이 비율(18~35세의 비율)이 누적 30만 명 중 71.8%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누적 36만 명 중 61.7%로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이 비율을 다시 75% 이상으로 올리려면, 현재 17,000여 명의 연간 신규모집 숫자를 두 배로 늘리고 18세~35세에 집중하여 모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카페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데스크를 설치하고 그것을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에서 나누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만하다. 헌혈카페를 방문한 헌혈 부적격 헌혈 지원자 중 조혈모세포 기증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헌혈자로



부터 조혈모세포 기증을 설명하고 등록을 받는다면 헌혈 실패로 낙심한 헌혈지원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차후에 다시 헌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자 36만 명 중 43.2%는 여성이다. 그런데 헌혈자로 오면 그 비율은 26.6%로 떨어진다. 2020년 여성 헌혈지원자 85만 명 중 21만 명이 헌혈부적격 판정을 받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조혈모세포 기증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문진에 탈락한 여성 헌혈자에 집중하여 혈액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권유하고 등록기관에서 모집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사람이 차후에 다시 헌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을 비대면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 익숙하게 되었고 막상 경험해보니 편리한 점도 느끼게 되었다. 좀 더 많은 기증희망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온라인교육/화상회의의 시스템과 구강도말검체 운송방법을 결합시키면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혈액을 채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모집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일부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모집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혈액암 등 70여 가지의 중한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기증희망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 당연하니까요. 일치하니까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기증자 민경인

###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민경인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 기증희망등록 하셨을 때를 기억 하시나요?

사실 날짜를 잊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증 연락 받게 되면서 확인해보니까 2009년 12월에 신청했었던 거더라고요. 헌혈을 고2때부터 했었는데, 등록했던 09년에는 스무 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 때 헌혈하면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도 권유해주셔서 같이 신청하고 혈액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 기증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등록하고 나서 12년 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봄 즈음에 받았는데요,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니다. 등록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증 연

락은 오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 정보가 누락되어 등록한 게 없어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연하니까요. 일치하니까요.

### 기증 사실에 대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증을 확실히 결정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를 반대할 생각이었어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반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증을 반대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려웠던 점은 그냥 2번이나 미뤄진 거 밖에 없어요. 제 사정이 아닌 환자분의 건강상태로 인해 미뤄졌는데, 빨리 기증하지 못해서 어렵다거나 아쉬웠다는 게 아니라, 이식받지 못할 환자분의 상태가 무척 걱정되었어요.

### 기증을 앞두고 계신데, 이식받을 수혜자분께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조혈모세포 기

증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쑥스러워요. 아직은 실제 기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정자로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분은 수혜자분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수혜자분이 완치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움 드릴 겁니다. 기증 일정이 더 미뤄져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

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 가장 완벽한 치료 방법이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희망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저도 있으니까, 완치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후, 민경인 기증자님께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날에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혈액암 환자분께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며, 간단히 기증 소감을 여쭙었습니다.

### Q. 기증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증 중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직장인이다 보니 입원 직전까지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증 전부터 안내해주셨던 주의사항들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오히려 2박 3일동안 잘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기증을 확정된 순간부터 조금 더 건강을 돌보게 되고 건강검진도 받게 되면서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 Q. 기증 이후에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 사실 기증 전후로 저의 생각이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멀리서 응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동참했다는 책임감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가치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고 무엇보다 환우 분들의 완쾌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민경인님 인터뷰 영상보기 >>>

## 우리의 한 걸음이 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삶의 의지가 됩니다.

기증자 장원석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4살인 남양주에 살고 있는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증자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제가 성인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12~13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와 함께 헌혈하는 것이 취미였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해서 헌혈하는 중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추천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에 봉사활동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조금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봉사활동 계획을 잡을까 생각중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코로나가 좀 잡히고 나면 빨리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기증희망등록 후, 일치 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기증희망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록 후 약 10년이 지나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육하셨기 때문에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도울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행복합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 소식에 주변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왜 하나는 것과 무섭지 않냐는 것,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등 많은 걱정과 기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해 하고, 오히려 그런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해시켰기에 다들 박수치면서 대단하다고 해줬습니다.

### 기증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좀더 몸 상태와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제 체력과 건강에 관심을 더 주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기증 전보다 더 건강이 좋아진 게 기증하면서 좋았던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증 이후에 조혈모세포기증(골수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 기증 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심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심에 더 감사합니다.

### 기증 받으시는 수혜자 분께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투병으로 고생 많으셨을텐데, 저의 조혈모세포와 함께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과 기운도 함께 보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한 기운 받으셔서 다시 건강한 삶으로 곁에 계신 가족분들과 더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 아직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과 시도라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도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내딛는 작은 발자국 한 걸음이 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 분들에게는 그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삶의 의지가 될테니까요.

###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려운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어려움은 수혜자분께는 언제나, 항상 겪고 있는 불편함이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기증 후 불편감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니 너무 큰 걱정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몸도 리플레쉬 되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 기증자님의 따뜻한 뜻을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수혜자의 따님 심지연(가명)

안녕하세요. 당신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기증받는 환자의 딸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이 마음이 전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 해 어느 날, 아버지께서 외출하셨다가 처음으로 정신을 잃으시고,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수 차례 드나들며 발견된 혈액암은 거짓말처럼 저희 가족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반복된 항암치료 중에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도 있었고, 백혈구와 혈소판 수혈이 시급해서 염치없게도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께 부탁하고, 두 발로 뛰어 구해보며,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조차 구하는 것도, 그리고 도와주겠노라 용기를 내는 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구하는 것은 그 것의 수백 배, 수만 배는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으며, 유일하게 기대했던 가족분도 완전 불일치로 나와서 결국 2만분의 1의 확률로 타인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으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해외에서도 구하기 어렵다 하여,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과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한다는 소식에, 의사 선생님 앞에서 온 가족이 얼마나 울었는지요. 세상에 어떤 부모 자식 간이 귀하지 않겠나마는 저는 외동이고 아직 미혼이라 제게는 여전히 세상 전부인 부모님입니다. 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탓에 이제야 가족과

못 다한 시간을 보내려던 참인데 효도는커녕 얼굴 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나 싶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후회되었습니다.

기증자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께서 생명의 기회를 얻으십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생면부지의 한 사람을 살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일들을 겪으며, 저 또한 남에게 베풀고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생명을 나누어 드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기증자님의 따뜻한 뜻을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평생토록 말씀드려도 다 전할 길이 없습니다만, 제한적인 기증자-수혜자 간의 규칙 안에서 어떻게 해야 기증자님의 선한 의도에 누를 끼치지 않으며 감사 인사를 전달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앞날에 늘 좋은 일 가득하시고, 용기 내어 한 생명을 구해주신 만큼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삶에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기증자님, 한 가정의 생명을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혜자의 어머니 박명희(가명)

고마우신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증자님께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셔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20대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들은 작년 겨울, 잇몸 통증이 심해져 치과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등 통증이 완화되는 약을 받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경에 집에 와서도 새벽 5시까지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다음 날 아침, 치과병원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며 보름치 약을 새로 받아 나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1차, 2차, 3차까지 치료 후 기증자님께서 기증을 결심해주셔서 지금 이식 전 전처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엄마인 저는 백혈병이 무서운 병,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병명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저와 똑같이 생긴 아들한테 어마무시한 병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는 딸과 아들, 남매를 두었어요.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누나인 딸이 유전자형 검사를 했는데 맞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항암 치료를 다시 받고 있던 중, 우리 아들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분이 계시고 기증 의사를 밝히셨다는 소식을 전달 받고 너무나 떨리고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뻐했어요. 기증자님께서 최종적으로 기증해주시겠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을 때는 눈물이, 콧물이 나도록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기증자님께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기증자님, 한 생명을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자녀를, 아들의 생명을 살려 주셔서 저희 가정은 하루 하루 희망을 가지고 아들의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님 덕분에 저희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누나, 삼촌, 숙모 등 아들을 아는 모든 이들이 아들의 치료 후 완치 판정까지 모두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으며, 기증자님의 건강과 기증자님의 가정의 축복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어려운 사랑을 도와 주며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기증자님, 한 가정의 자녀의 생명을 살려 주셔서 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완치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증자님, 조혈모세포 기증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증자님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제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하는 날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제20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기념

##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처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헌혈처럼 이루어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이지만  
2만분의 1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확률을 뛰어 넘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형 환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어 준 이야기  
기증할 약속한 기증희망자의 생생한 기록인 이야기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준 기증자에 대한 감사할 가득한 이야기 등을  
당신의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를 완성하는 분들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공모 주제**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이야기 모두

**공모 자격**  
① 조혈모세포 기증자  
②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연령차 무관)  
③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수혈환자 제외)의 경우 보호자 포함  
※ 우리단체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거나  
기증희망등록(예약을) 한 분, 이식 받은 환자(보호자)에 한함  
※ 공모 자격 확인: 02-737-5533 (연락처 2, 3)

**공모 일정**  
공모 기간: 2021년 6월 21일(월) ~ 8월 1일(일)  
수상작 발표: 9월 4주차 (예정)  
시상식: 9월 5주차 (예정)  
※ 참가 방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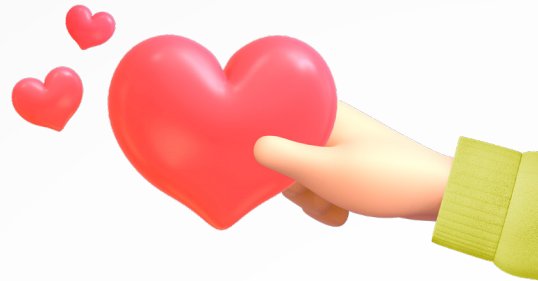
**참조 사이트**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kmdp.or.kr>  
이메일: [kmdpcontest@naver.com](mailto:kmdpcontest@naver.com)  
02-737-5533, 5534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지원팀)

부문	작품 규격
동영상	A4, MP4, H264 파일, 30초~5분, 1080P 30FPS
웹툰	JPG, 흑백 100도, 원형 이미지, 원형상 스토리 라인, 30MB 이하
수기	HWP 혹은 DOC 파일, A4용지 2~3장 이내, 손 쓴 것 가능
그림	크기 무관, 손 그림과 컴퓨터 그래픽 작업 모두 인정

**시상 내역** 총 상금 600만원 28명 (보건복지부장관상 1명 포함)

부문	1등	최우수상	우수상
동영상	1명, 50만원	2명, 30만원	4명, 20만원
웹툰	1명, 50만원	2명, 30만원	4명, 20만원
수기	1명, 30만원	2명, 20만원	4명, 10만원
그림	1명, 30만원	2명, 20만원	4명, 10만원

보건복지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국혈액은행



#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공모전 수상작 모두보기

9월 13일 월요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회 의실에서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 규모를 최소화하였으며, 동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 차규락 기증자님과 수기 부문 대상 수상자 박태현 기증자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World Marrow Donor Day)』을 기념하고자 개최

하였습니다. 이 날은 올해로 제20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기증희망자의 기증의사 유지를 독려하며,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및 기증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적과도 같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어 준 이야기, 기증을 약속한 기증희망자의 설렘 가득한 이야기,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준 기증자에 대한 감사함 가득한 이야기 등을



모아 조혈모세포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 힘이 되어 주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께는 새 생명의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6월 21일(월)부터 8월 1일(일)까지 42일 동안 동영상, 웹툰, 수기, 그림 등 4개 부문으로 공모했으며, 공모 자격은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이식수혜자(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가능)로 총 67건의 작품들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우리협회 관계자의 심사로 작품규격 준수 및 심사 기준에 의하여 동영상 11건, 웹툰 5건, 수기 21건, 그림 3건 등 총 40건이 통과되었습니다. 2차 심사는 기획홍보위원회 황유성 위원장,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노봉수 회장, '부울경 징검다리' 박시현 회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 한국혈액협회 추미정 부장, 한마음혈액원 한송이 선임과장 등 6분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동영상 부문 대상 차규락 기증자님, 웹툰 부문 대상 이재원 기증희망자님, 수기 부문 대상 박태현 기증자님, 그림 부문 대상 문희정 기증희망자님을 비롯하여 총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작품 중 가장 높은 점수와 심사위원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한 작품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그 주인공은 동영상 부문의 차규락 기증자님입니다. (p18-19 참고)

아직도 조혈모세포 기증을 모르고, 기증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며 진심이 가득 담긴 공모전 수상작들이 기증을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는 분들께 큰 용기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보러가기



##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증자 차규락 (2021년 1월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보냈던 어머니와 부모 몰래 기증을 하려했던 아들. 생명의 소중함에 동의한 둘은 갈등을 극복했고 원활한 기증을 할 수 있었던 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기증자 차규락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 개최 연락을 받은 뒤 반드시 참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격려, 그리고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기증에 대한 부작용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선부르게 기증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고, 마치 본인의 남은 삶을 나누어 타인에게 기증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저의 후기를 보고 기증을 희망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식을 받으신 분께서는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셨기에 저는 많은 양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체중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즐기고 결

과적으로 필요한 양의 조혈모세포를 충분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 지인들은 제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그토록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가? 누군가 나의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손길을 내미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만약 어린아이가 빨간불일 때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려 한다면 누구든지 그 아이를 막아설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누구든 나서서 그 사람을 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배웠기에,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제게 생명의 소중함과 하루의 감사함을 일깨워주신 저의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엄마에게

기증자 박태현 (2021년 6월 기증)

아들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설명과 아들의 속 이야기



대상



To. 엄마에게

안녕 엄마,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건 초등학교 이후론 처음인 것 같네. 내가 올해 조혈모세포 기증하고 인식개선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핑계 삼아 엄마한테 편지 한 번 써.

엄마가 그랬지, 난 어릴 때부터 뭐든 내가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고.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

내가 2019년에 조혈모세포 기증신청하고 협회에서 연락 올 때까지 엄마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었더라고. 사실 나도 까먹고 있다가 연락 와서 그제야 내가 신청했었던 걸 알았었어. 협회에서 내 유전자랑 적합자가 나타났다고 연락 오고 가족 동의를 꼭 구해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제야 엄마아빠한테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했었지, 근데 엄마아빠가

되게 처음엔 반대했었지. 난 그때 남 살리는 좋은 일인데 왜 반대할까 조금 실망했었는데, 엄마아빠도 이런저런 정보 찾아보고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겠다고 밀고 나가니까 동의 해줬었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2'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에피소드랑 장기기증을 못 받아서 하늘나라로 간 아이 에피소드를 봤었어. 그 에피소드 보는데 그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더라고.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처음 병원에 갔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사망했다는 진단받았었다 했잖아. 그때 엄마아빠가 다른 병원 안 가고 그 병원에서 나를 포기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었겠지, 그런 일 당했으니까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의료적으로 내가 기증까지 한다니까 더더욱 말리고 싶었겠더라고.

근데 엄마도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나 살리고 싶어

서 다른 병원 가서 처음 받았던 사망진단이 잘못됐단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정말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엄마아빠가 그런 생각 했던 것처럼, 나한테 기증받은 수혜자분들 가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엄마아빠가 살려준 귀한 목숨 다른 귀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쓰는 거잖아. 심지어 내가 준 세포들이 생착도 잘 돼서 무사히 퇴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곤 하는데 내 세포 받으셨으니까 분명 건강하게 살아가시겠지? 나는 고작 3일 동안만 아프면 되지만 내가 아니라면 환자분은 30년을 아프실 텐데 내가 그 30년을 덜어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니고 쉬운 일 아닐까?? ㅎㅎ

엄마가 기증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틈틈이 얘기해준 내용 말고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잘 몰랐을 거야 그렇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도 일절 못 왔으니까 말이야. 내가 사회복

지학과 학도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한 국민의 생명을 귀히 여겨 기증한 이유도 있겠지.

근데 내가 기증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야. 기증신청을 한 것도 내 의지였고, 기증을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도 오로지 내 의지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증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겁고 힘든 일 한 것 같은데 되게 그렇지도 않아. 나도 처음엔 장기기증에 속한다는 말 듣고 조금 불안했다? 근데 막상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예전처럼 척추에서 바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조금 긴 헌혈을 한다는 것 뿐이더라. 헌혈 좀 길게 했는데 사람 한 명의 목숨을 구했는데, 얼마나 쉬워. 물론 엄마가 주사를 좀 무서워하긴 하지만 사람 목숨에 그깟 주삿바늘이 무슨 대수겠어.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 기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 코로나 시국에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코디네이터분이란 연락도 잘 안 되던 날도 있어서 중간중간 좀 고비가 오기도 했었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기증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내가 2만분의 1의 확률로 기증을 했는데 아직도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참 많다고 하더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30만 명 이상이 기증신청을 했었는데 올해까지 겨우 9,000명밖에 기증 못 했데. 정말 웃기지 않아? 기증하고 싶어도 유전자형이 안 맞아서 기증을 못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데. 근데 나는 2년도 안 돼서 연락 오고 말이야. 정말 운이 좋지 않아? ㅎㅎ

처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연락 왔을 때 되게 무덤덤했다? 그냥 ‘아, 내가 기증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채혈해서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연

락 받았을 때도 그다지 큰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이런저런 정보 찾아보고 건강검진도 받고 하니까 점점 실감이 나더라. 그러다가 이제 촉진제 주사 처음 맞으려고 병원 가서 주삿바늘 팔에 딱 꽂히니까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이 나더라고 내가 조혈모세포를 기증을 한다는 게.

지금 와서도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내 기증 일정 거의 다가왔을 때 내 기증 반대 안 한 거야. 기증한다 해서 수혜자가 세포를 죽이기 위해 위험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와중에 가족이 반대해서 기증을 못 해서 수혜자가 생을 달리하신 일도 허다하다 하더라고. 그거 생각하면 정말 너그러운 동의를 해주셔서 고마워.

엄마가 모르는 내 입원 라이프 좀 말해주자면 난 되게 재밌었어. 그 큰 대학병원에서 1인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ㅎㅎ 그리고 나 주사 꽃아주시던 간호사님들, 진료 봐주시던 담당 의사 선생님, 내 피 뽑아주신 진단의학과 선생님,

무엇보다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내 기증 일정의 99.99%를 도와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더라. 전부 다 나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증 일정에 어려움 없도록 너무 잘 도와주셨어. 그런 분들 덕분에라도 한 번 더 기증하고 싶더라니까 정말.

엄마가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 그래도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걱정하던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기증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회복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추후관리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 기증한다고 끝이 아니고 혈액검사도 하고 일정 주기마다

전화로 내 건강 체크도 해주신다고.

만약 재기증 요청이 와도 나는 기꺼이 기증할 것 같아. 그 정도로 난 내 인생 통틀어서 제일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일 고마운 우리 엄마, 내가 기증한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믿어주고 내 선택 존중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라 정말 고마워.

From. 철부지 없는 아들래미 태현이가







수필집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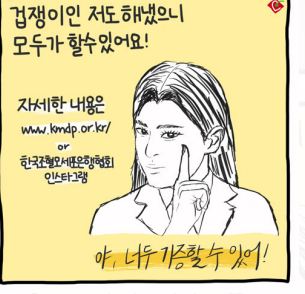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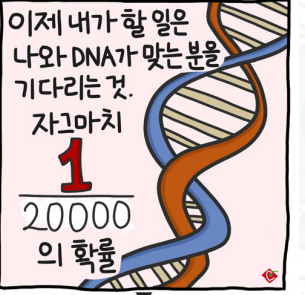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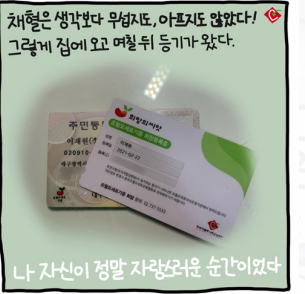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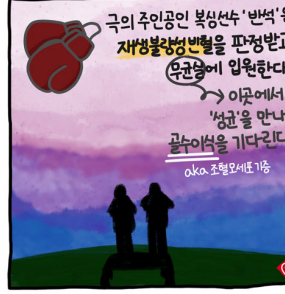
이제 내가 할 일은  
나와 DNA가 맞는 분을  
기다리는 것.  
자그마치  
1  
20000  
의 확률



## 나의 기증 신청 이야기

기증희망자 이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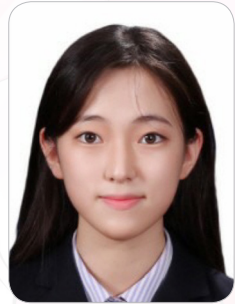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뮤지컬을 관람하여  
기증에 대해 잘 알게 되면서 기증희망 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웹툰으로 풀어냈습니다.







대상



##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처럼

기증희망자 문희정

조혈모세포 기증을 헌혈처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공모전의 부주제인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처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를 인용하였고 목적 전달을 돕고자 조혈모세포 기증을 진행 중인 캐릭터를 표현하여 포스터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영통점, 신림점, 수원점, 메디컬 매버릭스 홍보위원(한양대 의과대학, 아주대 의과대학, 동국대 의과대학), KMDP 온라인 기자단2기(경북과학대), KMDP 대학생 서포터즈 4기(한림성심대), RCY 경북지사(동양대, 경북과학대, 경북보건대, 대구한의대, 대구가톨릭대, 대경대), RCY 대구지사(계명대학교), 강릉영동대, 기쁜소식강남교회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2)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활동 내용

2020.09 ~ 2021.03  
헌혈카페 영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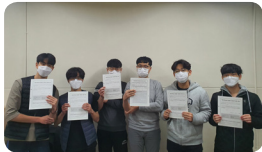
2021.05. ~ 07.  
헌혈카페 신림점



2021.03. ~ 현재.  
헌혈카페 수원점



2020.11.0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2020.11.10.  
경북과학대학교



2020.11.14.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8회차



2020.11.20.  
강릉영동대학교



2020.12.0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020.12.15.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2021.04.14.  
동양대학교



2021.04.15.  
계명대학교



2021.04.26.  
경북과학대학교



2021.05.04.  
경북보건대학교



2021.05.06.  
대구한의대학교



2021.05.12.  
대구가톨릭대학교



2021.05.13.  
대경대학교



2021.05.22.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1회차



2021.06.19.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2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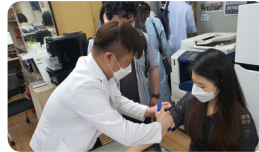
2021.06.27.  
마로니에 공원



2021.07.03. 메디컬 매버릭스  
위촉식 및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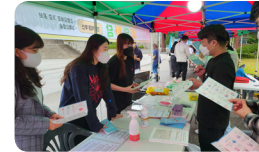
2021.07.11.  
기쁜소식강남교회



2021.09.28.  
경북보건대학교



2021.09.29 ~ 30.  
한림성심대학교



2021.10.26 ~ 27.  
경북과학대학교







## 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조혈모세포 기증,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KMDP 이식조정1팀 심소영 코디네이터

###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조정기관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심소영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 찾아보다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알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조정기관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조정기관 코디네이터는 간단히 말하자면 기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기증희망등록 시의 정보를 토대로 유전

자형이 일치하는 분을 찾아 연락을 드립니다. 기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 드린 후, 기증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증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상세 유전자 확인검사와 정밀검사를 시행한 후, 기증 일정 확정을 위해 채집 병원과 기증자, 환자의 일정을 모두 조율합니다. 건강검진과 촉진제 주사 투여 일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입원부터 퇴원할 때까지 기증 절차를 모두 관리하며, 퇴원 후의 기증자의 건강 상태 또한 코디네이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기증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어긋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군인 신분의 기

증자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휴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기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게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수가 생겨 제가 관리의 범위를 넘어가버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환자분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서 더 간절해 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기증자는 있다면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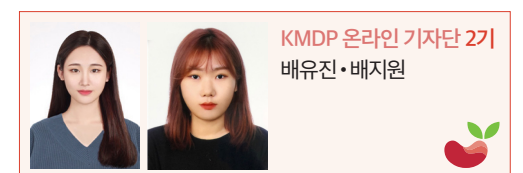
기증 후 환자분께 보낸 편지에 고맙다는 내용을 작성하신 기증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증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고 갑니다. 환자분도 힘내시고,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분에 앞으로 더 잘 살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증 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존감 또한 생겨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조정기관 코디네이터를 하며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기증자분들을 만나 건강검진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곤 합니다. 어떤 기증자의 친구분께서 “보통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결과까지는 좋기 힘들데. 하지만 너는 좋은 의도로 기증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나는 네가 부러워!”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무사히 기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증자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뿌듯해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때 직업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을 망설이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백혈병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간다는 것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로 모든 치료를 다 해본 뒤에 최후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의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불편감이나 위험 부담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시간을 따로 할애해야 합니다.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수고스러움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조혈모세포 기증,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잘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부심을 가지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주세요!

충남대학교병원혈액원 이수진 코디네이터

혈액은행클리닉·혈액원  
Transfusion Medicine Clinic · Blood Center

### 채취센터 코디네이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기증 전,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해 본원의 교수님과 일정을 조율하거나, 외부 기관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일정 조율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기증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입원된 관리도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기증자 관련 사항이나 필요한 점들을 듣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코디네이터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증자분 중에 기증을 2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자녀분이 혈액암으로 투병한 적이 있어서 어릴 때 조혈모세포 기증자분을 통해서 기증을 받은 경험 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교도 무사히 입학하고 잘 성장했다고 해요. 이 과정을 겪으며 아버지인 자신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하셨었대요. 신청을 했는데 딱 기증자분과 맞는 환자가 생겨서

기증을 하셨고, 몇 년 뒤에 또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재차 기증을 하셨는데,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에 기증하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건강검진시, 심전도 결과와 입원 당일의 검사결과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 퇴원 이후에 진료를 권유드렸습니다. 경과 관찰을 하던 중에 심장혈관이 약간 막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심혈관 센터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며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증자분께서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기증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모르고 지나칠 뻔 했는데 기증 덕분에 제때 검사를 받고 또 의료진의 조언으로 질환을 빨리 발견해 서둘러 치료할 수 있었다며, 협회와 의료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

께 기뻐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 기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 할애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조혈모세포로 다른 사람에게 는 생명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기증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증을 고민해보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증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증을 며칠 앞두고 나서부터는 기름진 음식을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규칙은 없지만, 튀김이나 생크림 등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혈장, 혈청에 기름이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채집하시다가 혈액이 너무 탁하고 중성지방수치가 높아서 중단하고 약 드시면서 수치를 조절하고, 운동하신 다음에 다시 기증을 진행한 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주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 주의사항들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 기증 후,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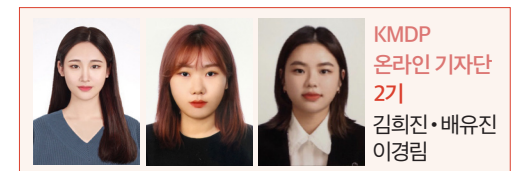
기증 후에는 특별한 부작용이라고 할 건 없고, 오히려 기증하는 도중에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혈모세포 채취 과정이 혈관에 바늘을 꽂아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고 다시 혈액을 돌려 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혈액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든요. 이 성분이 혈액 내의 이온 칼슘을 배출하는데, 그 때 손끝이 저린 다거나 입에서 금속성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의 증상이 간혹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의료진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증 중에 칼슘을 보충하며 불편감을 최소화 하고 있어요.

### 채취센터 코디네이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채취센터 코디네이터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간호사라면 그냥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채취센터에서 일하면서 기증 도중에 기증자분들이 더운 것 같으면 부채질을 해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과 같이 따뜻한 마음이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증자분들이 저에게 기증하는 건 아니지만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팔에 바늘을 꽂아 기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드리고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이식 및 질환의 완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이지민 코디네이터

### 이식센터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조혈모세포이식 코디네이터 이지민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질환 설명과 예후, 유전자 검사를 확인을 하여 이식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고 혈액질환 담당 교수님과 환자 와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질환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앞으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은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만약 이식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조혈모세포를 받아 이식을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많은 것을 궁금해 하게 되는데 저는 환자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조혈모세포를 선택 및 이식 준비를 하여 성공적인 이식 및 질환의 완치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또한 이식 후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통하여 환자 장기생존률 증가 및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타 병원에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 후, 관해유도 항암화학요법 및 수차례의 공고요법을 했지만 재발하여 구제항암화학요법 위하여 본원으로 내원한 50대 여성의 경우가 기억에 납니다. 혈연, 비혈연의 적합한 조혈모세포이식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을 보류했었으나 조직적합성항원도 일치하며 세포수도 높은 제대혈로 이식 한 결과 현재 환

자는 외래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 후 치료도 완료되고, 환자의 내원 횟수도 줄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이 보람찬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주로 이식을 하지 않지만 질환이 가속화단계로 들어가거나 좋지 않은 유전자가 발현되면 이식을 권유합니다. 남자 50대 환자분이셨는데, 유전자검사에서 T315I 돌연변이가 발현되어 처음부터 이식을 권유하였으나 환자 이식에 관한 강한 거절로 결국 질환이 가속화단계가 진행되어 이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질환이 재발되어, GVL(graft versus leukemia : 이식편대백혈병) effect를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종료하였고 환자의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심화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입퇴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더 좋은 방법이 없었는지, 제가 부족한 게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마음에 많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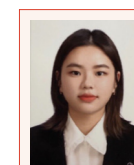
### 기증자분과 코디네이터 선생님과의 친밀감 형성이 기증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기증하시는 한분 한분의 마음이 매우 소중하며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본원 혈액종양내과의 교수님, 병동 간호사선생님 혈액성분채집실의 병리사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마음을 담아 기증자들의 일정, 편의를 생각하다 보니 기증자들이 채취센터의 코디네이터가 친절했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후기도 많이 적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은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 2일까지 가능합니다. 최대한 하루 안에 조혈모세포 채취가 마쳤으면 좋겠지만, 첫날 모은 조혈모세포가 너무 적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2차 채취 및 이식을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증자와 코디네이터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직업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환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환의 치료가 길어짐에 따라 환자분의 경제적 능력과 치료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아 이식하는 과정은 본인의 치료를 병행하며 조혈모세포를 구득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조혈모세포를 찾아야하기에, 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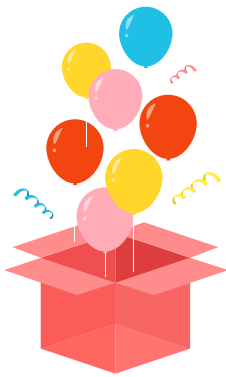


KMDP 온라인 기자단 271  
이경림



##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다는 것은 언제나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암NGO한빛 송민정 사무국장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암NGO한빛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민정 사무국장입니다. 사회 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2015년부터 소아암NGO한빛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소아암 아이들과 보호자 분들을 볼 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더욱 간절해온 하는 것 같습니다.

### ‘소아암NGO한빛’은 어떤 곳인가요?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 아이들과 보호자인

부모님 때문에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수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에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했습니다. 병원 밖의 숙박시설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지 못하여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를 겪어야 했던 경험을 안타깝게 여긴 의료진들이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처음으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집인 한빛 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소아암 환자를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지원 사업으로는 소아암 가족을 위한 정서 지원 사업과 학습 지원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병원에서 직접 아이들의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과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치료비는 사용 기한을 두지 않아 끝까지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 사업**은 소아암 가족 모두를 돕고자 시작

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아이가 소아암에 걸리게 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모두를 돌보던 어머니는 아픈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아버지는 경제활동과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머니의 부재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년회, 운동회, 여름캠프 등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 연계 사업**은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환아가 있다면 대학생 멘토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께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이 있다면 저희 단체가 위치한 서대문구에는 대학교가 많아 우수한 대학생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암 완치자 모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인식 개선 사업, 소아암 환자 멘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아암을 제대로 알리고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을 직접 겪고 이겨내어 누구보다 소아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인 및 청소년들이 소아암 완치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이들의 모습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매년 8월에 떠나는 여름 캠프는 2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초기 여름 캠프에 참석하였던 꼬마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뽕뽕뽕뽕한 눈망울을 가지고 언젠가 씩씩하였던 아이는 다행히도 완치되어 무럭무럭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



름 캠프가 진행된 지 20주년이 되던 해에 어느덧 결혼을 하여 엄마, 아빠와 꼭 닮은 어여쁜 공주님과 함께 참석하였고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암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자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곧 저와 같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시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대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한빛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송민정 국장님께 한빛, 사랑 하우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우스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포근함, 감싸줌, 편안함 등의 단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우스에서 지내는 소아암 아이들과 보호자분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포근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하우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몇 년 전, 한빛하우스에 5개월 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중국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던 부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였는데, 세상에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소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어서 하우스에 온지 거의 2년이 다되어가던 가을에 완치 판정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을 잃지 않았던 가족들의 모습은 지금도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 ‘한빛’이라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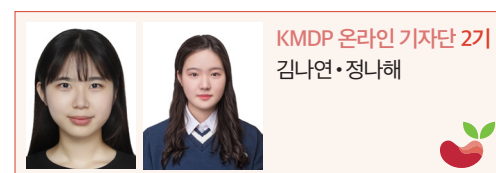
이곳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빛은 작은 단체이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공간을 같은 모습으로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동기부여로 함께 한빛을 이끌어주시는 후원자 분들, 봉사자 분들 그리고 우리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후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쓰여 있는 댓글이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상황도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힘내세요! 꼭 나을 거예요.”라는 댓글을 보면 그 분들의 진심이 오롯이 와 닿습니다. 현재 치료중인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조금이라도 돕기를 원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힘내세요!

###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다는 것은 언제나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혈모세포 기증과 같이 특수한 기증은 감히 그 가치를 가늠해 볼 수도 없습니다. 나의 큰 결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추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나눔보다도 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나눔은 그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를 소개합니다.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 정나혜, 김희진, 권예린, 문서연

4월 1일부터 시작된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의 활동이 10월 31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활동 기간 동안 11명의 기자단원은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위해 개성 넘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냈는데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 기증자 인터뷰,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이 이루어지는 채취센터와 이식센터의 코디네이터 인터뷰, 환자지원단체 인터뷰 등등 우리협회 외에도 기증 및 이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협력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 여러분들의 각양각색 카드뉴스,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 KMDP NEWS

2021년 제20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기념

##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당신의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를 알리는 분들께는 힘이 되어주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대상: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조혈모세포 기증자로서 이식환자(보통자 기증)  
 부문: 동영상, 웹툰, 수기, 그림  
 기간: 6월 1일(월) ~ 8월 31일(일)  
 접수 및 문의: kmdp.contest@naver.com

주최: 한국조혈모세포기증사업추진위원회  
 후원: 보건복지부

### 1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9월 18일, 『2021년 제20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KMDP에서는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이식수혜자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긴 작품이 총 67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2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소책자로 제작했습니다. 소책자는 KMDP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식 ▶ 홍보자료 ▶ 간행물)



### 2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

4월 3일,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최종 선발된 11명의 기자단원들은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자단원들의 모든 콘텐츠는 우리협회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투병물품 및 치료비 지원사업

2021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및 전년도부터 이루어진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으로 KMDP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치료비 및 투병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KMDP는 혈액암 환자의 완치를 응원하겠습니다.



### 4 메디컬 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활성화 업무협약

5월 1일, KMDP와 비임상 진료 의대생 네트워크 '메디컬 매버릭스'는 조혈모세포 기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은 모태영 회장을 포함해 총 19명이 최종 선출되었으며, 조혈모세포 기증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5 테울 주식회사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체결

10월 1일, 테울 주식회사와 KMDP는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테울 주식회사의 질병타겟팅미디어 '필독' 서비스를 통해 약국 처방전 봉투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는 홍보 배너가 여러분들께 소개됩니다. 이 광고를 접하신 분들께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기증에 관심과 응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6 2021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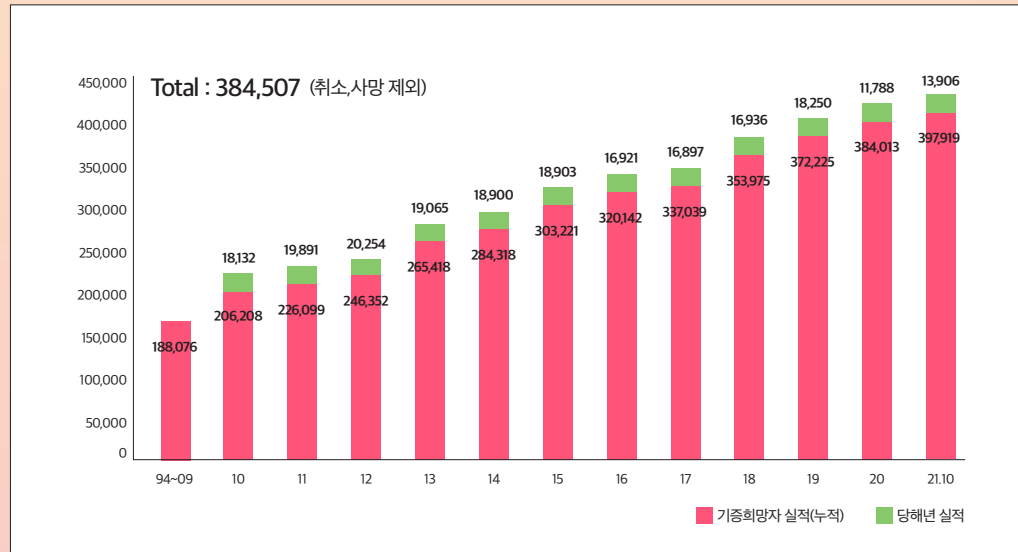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제26회 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우수 석학이 한 자리에 모여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과 논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바탕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이 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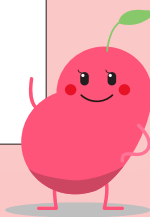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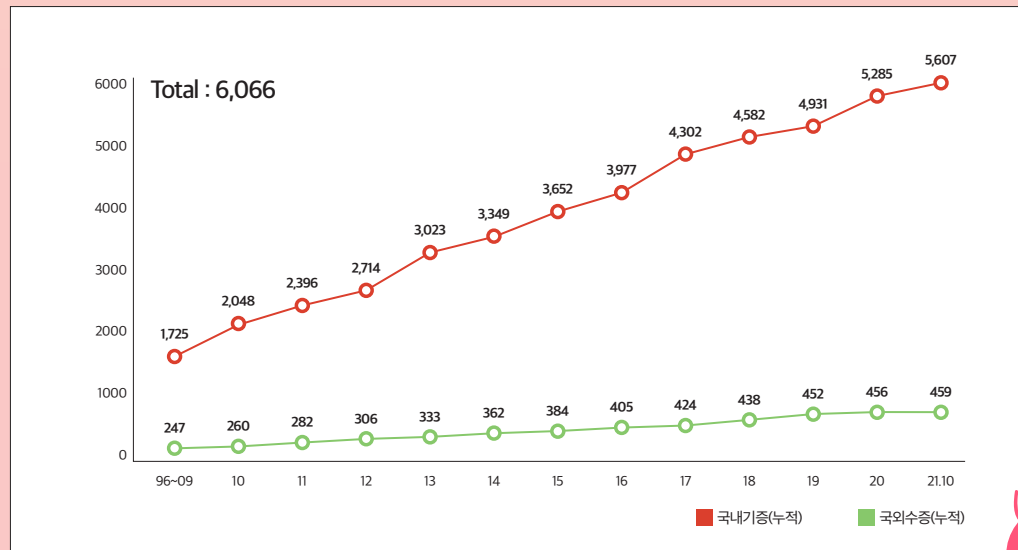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자료제공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단위: 명)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자료출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단위: 명)



##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아직 ‘징검다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 보세요! 새 생명의 기쁨 나누기를 실천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 줄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 “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을 통해 기증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개설되어 있으며, 가입 문의는 아래의 각 지역 총무 혹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연락주세요.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안내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공지는 페이스북 그룹(징검다리 - 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과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경기 총무 박철희 010-2620-0079
- ▶대전.충청 총무 임재영 010-9421-5936
- ▶부산.울산.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illegible][illegible][illegible]

김건영 김승권 안현우 유정수 이강모  
김태호 나성호 박근우 박기우 박지은 박경호  
정종철 정해문 최형순 최영재 최태연 최태연  
남호식 노규동 송준찬 서태호 송준찬 송준찬  
하슬비 2001 강성구 강요한 강진구 강진구  
박승준 박석도 전두호 정국현 정병민 정병민  
임준혁 장영주 김대희 김대희 김병관 김병욱  
류희형 마숙찬 문윤실 박정훈 박정훈 박정훈  
유대일 김기원 유자혜 유준선 유상일 유상일  
양기연 임호경 정장근 정장래 정헌조 정헌조  
강소은 강요한 강인보 강인보 강인보 강인보  
김광수 김해라 김홍범 남경완 남경완 남경완  
신상보 신용환 신동훈 심재학 심재학 심재학  
이민득 이상기 이천은 이명재 이명재 이명재  
지진진 천종관 이서연 최형순 최형순 최형순  
권순태 권영락 김건현 김기복 김기복 김기복  
송재열 송해만 송현철 신경수 신경수 신경수  
신상담 이신도 이소연 이소연 이소연 이소연  
정규호 정민재 정성준 정부보 정부보 정부보  
허 성 허 시홍표 홍성일 홍성일 홍성일  
김민선 김민주 김민철 김백규 김백규 김백규  
김현규 김형년 김형진 김후남 김후남 김후남  
서종근 신승곤 신행록 설기남 설기남 설기남  
유진영 유화찬 윤운진 이가을 이가을 이가을  
전현식 정규식 정종필 정기철 정기철 정기철  
최창진 최정식 최정길 최초찬 최초찬 최초찬  
국영만 권오경 권원택 권현진 김강산 김강산  
김영진 김예지 김동진 김동진 김동진 김동진  
노성중 노호경 동승재 류지윤 류지윤 류지윤  
서승훈 서로정 서우식 서우식 서우식 서우식  
오준호 오현우 오지수 위철원 위철원 위철원  
이창우 이정학 이종수 이치나 이치나 이치나  
조영준 조준희 조한태 지봉원 지봉원 지봉원  
홍준기 황경미 황덕연 황지희 황지희 황지희  
김수진 김언극 김연남 김영세 김영진 김영진  
김태환 김해룡 김현준 김형도 김형도 김형도  
박창진 박빌선 박배민 박배민 박배민 박배민  
유정민 유정민 윤 준 윤준 윤준 윤준 윤준  
이재철 이재목 이우영 이준식 이준식 이준식  
정성훈 정영호 정영문 정재호 정재호 정재호  
최형선 최경삼 최남주 최덕호 최덕호 최덕호  
한민규 한병환 홍영희 홍인보 홍인보 홍인보  
공상진 공 준 공수영 공지현 공지현 공지현  
김진원 김용집 김용현 김윤정 김윤정 김윤정  
류수진 문미자 문윤호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서창원 서우령 삼석정 송승복 송승복 송승복  
윤상식 윤영수 윤준진 윤재복 윤재복 윤재복  
이정희 이정훈 이준희 이준복 이준복 이준복  
정민도 정우영 정준호 정진호 정진호 정진호  
최치익 최정발 최취호 최한솔 최한솔 최한솔  
고수현 고영수 김종우 권나라 권영민 권영민  
김갑선 김지연 김시연 김성미 김성미 김성미  
김지섭 김지연 김지현 김지희 김지희 김지희  
문태균 민상택 백기탁 백기탁 백기탁 백기탁 백기탁  
방윤송 배창규 백광수 사기은 사기은 사기은  
이상엽 심돈현 안수환 양정옥 양정옥 양정옥  
윤주영 이경민 이광영 이도윤 이도윤 이도윤  
이재현 이종현 이종현 이종현 이종현 이종현  
정종훈 정준별 정 한 정대근 정대근 정대근  
정성훈 차형대 차형대 최형민 최형민 최형민  
김기호 규규선 김민선 김강규 김강규 김강규  
김기호 김기현 김기현 김다윤 김다윤 김다윤  
김기호 김기현 김기현 김승만 김승만 김승만  
김정순 김형현 김정순 김정재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권준현 권광현 권광현 권정재 권정재 권정재  
박준환 박준환 박준환 박하연 박하연 박하연  
송기현 신재민 신바하 신우진 신우진 신우진  
오성호 우상업 원해철 우영식 우영식 우영식  
이효진 이수림 이수미 이소희 이소희 이소희  
안하리 이현수 이호도 이소철 이소철 이소철  
정진진 정형출 정형출 제광기 제광기 제광기  
최희훈 최경기 최영삼 최영재 최영재 최영재  
김승훈 김승훈 김우용 김중민 김중민 김중민  
김기덕 김기연 김기연 김남욱 김남욱 김남욱  
김지현 김진호 김지영 김미미 김미미 김미미  
박기 건 박준호 박준호 박기래 박기래 박기래  
박준민 박준민 박학경 박학식 박학식 박학식  
신홍삼 안병환 안윤기 안원진 안원진 안원진  
유승현 유 찬 유우찬 유우식 유우식 유우식  
이수현 이현우 이소현 이승기 이승기 이승기  
이현우 이현우 이흥우 이효찬 이효찬 이효찬  
정지니 정민아 정영빈 정성준 정성준 정성준  
조준혁 조해경 조호식 조미숙 조미숙 조미숙  
김유진 최은수 최형삼 최충원 최충원 최충원  
강병택 고르선 고현호 골민규 골민규 골민규  
김동원 김두진 김두영 김루아 김루아 김루아  
김동우 김이사 김대우 김재환 김재환 김재환  
노도록 노대선 노대수 노영준 노영준 노영준  
박승일 박신용 박현준 박매선 박매선 박매선  
사순현 손은은 손은하 손은하 손은하 손은하  
메타데 오동훈 오동우 오수정 오수정 오수정  
이도기 이도원 이시미 이명우 이명우 이명우  
이윤보 이윤호 이원찬 이원진 이원진 이원진  
이현준 이현지 이현지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전준현 전지훈 전지훈 정규식 정규식 정규식  
조지훈 조은식 조은지 조주택 조주택 조주택  
최진현 하대진 하대진 하현표 하현표 하현표  
김기현 고정식 고정식 고승현 고승현 고승현  
김명현 김명현 김문일 김문진 김문진 김문진  
김성숙 김기진 김지연 김지선 김지선 김지선  
김준선 김지선 김지윤 김진석 김진석 김진석  
푸스톤 명지애 명지애 명문희 명문희 명문희  
박초희 박 혁 박현준 박현준 박현준  
신소영 신소호 신용주 신현복 신현복 신현복  
윤기현 윤경희 윤승 윤승 윤승 윤승  
이승음 이승미 이승만 이승주 이승주 이승주

[illegible]

이재현	장경수	이정환	이정훈	김민범	이준하
조재철	조종훈	최창열	주신태	유원명	전희남
김동진	최초석	추광익	주대인	한규구	한기영
고준성	공미선	김부록	권대호	권지식	강세백
김병국	김병승	김복룡	김보소	김갑일	김상진
김현우	김민찬	김형택	김경배	김경봉	김정현
김현우	김현호	김현주	김현주	김달보	김효선
박기호	박득진	박성용	박사중	박정호	박성빈
박기호	배계태	배성표	배성회	배준우	배성연
신종훈	신두현	신하은	신호근	안순옥	안충현
신종훈	윤정만	신언자	윤하나	은은숙	이대경
이영학	이예곡	이태관	이용금	이혜란	이상실
이진화	이진우	이완진	이해진	이요진	이민희
전건영	정성음	정성진	정우주	정승민	정재택
전진영	최광범	최귀선	최보은	최종임	최원표
황우주	황호선	2015	강산주	강문서	강 철
김광수	김규탁	김기홍	김무영	김다을	김도현
김현우	김영도	김현성	김흥석	김현진	김필
김해율	김현미	김형서	김현식	김현우	김해림
박병호	박상헌	박석재	박성근	박시원	박씨원
박병호	박욱주	박석로	박백인	서정형	서한정
이원성	유운수	유보라	유원술	유윤희	유원우
이원성	이상은	이석춘	이승진	이성민	이상민
이재근	이재석	이재영	이재훈	이재정	이정호
오재근	장기영	장미리	장병만	장영진	장한울
채광호	조규진	조혜준	조소현	조호만	조은희
최정호	최경환	최희천	최제현	최수민	최정호
김남수	강영은	강영진	강지호	강려원	강경희
김남수	김디애	김당현	김대전	김리온	김동규
김삼문	김민경	김영기	김영변	김병민	김영현
김지영	김지형	김진강	김진현	김태균	김향식
맹호출	맹도식	몽창훈	민서진	민찬걸	방 건
이성진	박 현	박정현	박학일	박학수	박홍진
신경민	신성원	신승돈	신원우	신승주	신성영
이래영	위지호	유 리	유 찬	유지희	유원철
정수진	임선아	임배호	임상봉	이성현	이슬현
정수진	임선아	임배호	임재학	이영길	이팔원
정수진	정세훈	정우재	정수진	정교도	정요원
함기성	주영송	주재성	주하윤	전한평	차원진
홍기성	홍민우	홍심하	황산민	황치만	황진석
김기성	김남은	김나리	김다스	김재현	김대한
김기성	김성호	김성호	김성훈	김새연	김솔
김종익	김종률	김종수	김주경	김갑진	김갑진
나하린	남상우	남나리	남경미	노비지	류지영
박신휘	박속흔	박성민	박완우	박석민	박재명
박신휘	박속흔	박속현	박현우	박시원	박만우
이세호	안소은	양성진	양하나	양재학	양영호
이소진	윤기성	윤수진	윤대호	윤복식	윤서원
이윤진	이서야	이승각	이성훈	이세원	이수현
이한진	이현지	임재현	임재훈	임현우	임현우
이한진	정영현	조영환	조동우	조종훈	조종현
최수현	최연주	최 인	최칠우	최희우	최종철
강상훈	강성훈	강진우	강진우	강희준	강도현
김진성	김민성	김민우	김대협	김갑진	김현우
김진성	김진경	김진호	김태현	박석진	박석진
배기호	배미라	배혁민	변정진	변지석	서민주
안영민	안기식	안상현	안종훈	안정진	이지현
안영민	윤희락	이영애	이경원	이연진	이광훈
임미미	임신규	임영호	이영철	이진진	이대영
임미미	임창덕	임승선	임창택	정종수	정종수
정성민	정지훈	정재현	정재훈	정재택	최현목
최성민	최윤정	최진원	최정호	최정호	최현민
강간주	강영환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견보람
김기환	김소영	김대현	김태현	김준원	김도현
김정현	김정호	김준우	김준우	김준원	김수연
김정현	김정호	김준우	김준우	김준원	김수연
손성철	손시현	손혜진	바지은	박지은	박희정
손성철	손시현	손혜진	손혜진	박지은	이정현
이상민	이상호	이상희	이소현	이소현	이 수
이종찬	이주영	이준희	이진우	이진우	이희후
이종찬	임현태	장규적	장지은	장정은	전진우
조광진	조녀현	조도훈	조모진	조소현	조여진
조광진	최소현	최소현	최진경	최진경	최진경
홍성영	홍기서	홍우서	홍문식	왕지은	왕지은
홍성영	고형석	구도훈	권소은	권경진	권기연
김원철	김원관	김성근	김세진	김세진	김세훈
김원철	김궁곤	김궁수	김민서	김현숙	김기영
김태균	김하늘	김현수			

[illegible][illegible]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이후 우리협회를 통해 실제로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입니다. (1996~2021.10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여러분이 자주 궁금해 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 일정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은 언제 접종하면 되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기증하고 나서는 2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증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것이며,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과 코로나19 백신투여로 인한 불편감에 대해 각각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시에는 일정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후, 일치 환자는 등록된 지역에서만 찾나요?

**A** 전국 각지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혈액암 환자가 발생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진행한 지역과 무관하게 일치 기증자를 찾습니다. 만약 적합한 국내 기증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국외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거나 반대로 국외 환자를 위해 국내 기증자가 기증하기도 합니다.

**Q** 혈의 경우, 거주지역의 제한이나 해외체류 경험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이런 제한이 있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기증에서는 헌혈 기준과 다르게 거주(방문) 지역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거주 이력이 있는 분들도 제한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기증이 가능합니다.

**Q** 평생 동안 조혈모세포 기증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두 번 이상 가능한지, 혹시 타인에게 기증하고 난 후 우리 가족에게 기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은 여러 번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성장인자 투여로 진행하는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 동안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비혈연간의 생면부지의 타인인 경우에 해당하며, 혈연간 기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및 시기의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기증이 가능합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때, 기증자 본인이 성인이어도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보호자의 동의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증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기증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연히 기증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나 혹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말씀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막상 기증 일정이 확정되고 난 후, 뒤늦게 가족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기증 절차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이식조정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치료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겨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전,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때의 입원 기간과 입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입원은 일반적으로 2박 3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혈모세포 기증이 위험하고 어려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2박 3일간의 입원은 기증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기증 직후의 컨디션을 확인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입원 일정에 조율이 필요한 경우,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상담하시면 사전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Q** 직장인입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휴가는 언제, 몇 번씩 써야 하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중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건강검진,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2박 3일의 입원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과 입원 일정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가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 3~4일전부터 매일 투여해야 하는 조혈모세포성장인자주사(G-CSF 주사) 일정은 약 10~15분 정도로 완료되기 때문에(병원 사정에 의해 1시간 가량 소요될 수도 있음) 별도의 휴가를 내지 않고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거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입원기간에 대해 공무원은 병가 처리,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을 지급합니다.)

**Q**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조정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의에 의한 마음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이식 받았지만 서로간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만일의 경우, 환자는 재발로 인해 재기증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기증자는 환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매매이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매매의 가능성을 소멸하고자 비밀유지 조항이 만들어졌으며, 기증자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항입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혈액암 환우를 응원해 주세요!

### 조혈암 인형 만들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캐릭터 조혈암,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를 인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인형은 소아암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3만원

인형을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중심정맥관 외부를 연결해 주는 히크만 카테터를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주머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1만원

주머니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 마스크 만들기

힘든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마스크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1만원

마스크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3

##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 11. 1. ~ '21. 10. 31.)

### 1. 기업후원 회원



### 2. 개인 후원회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회원명 (가나다 순)															
CMS 정기 후원회원	강동우	강득록	강슬기	강영경	강용래	강원구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진오	정혜나	정현주				
	강중수	강진우	강태호	강행경	고영일	고영철	조규섭	조성빈	조승휘	조옥주	조윤희	조정희				
	고유리	고윤석	고해정	고현종	공미아	공성진	조한승	조항민	조홍채	주영애	차종철	차형덕				
	공준호	권민지	권정도	권정미	권지혜	김경민	채은석	최강민	최관호	최도래	최미월	최사빈				
	김경선	김경실	김규현	김규환	김대중	김도하	최승관	최언화	최용혁	최유니	최은진	최철식				
	김동휘	김명길	김미란	김미소	김미지	김미현	추대환	추세란	하세린	하종률	한소라	한송희				
	김민지	김민호	김병국	김병주	김병한	김보현	한순옥	한승철	한연숙	한원배	한일호	한경지				
	김선아	김선정	김성중	김세연	김세진	김세현	함정은	허란경	허미경	허지웅	현정희	현진				
	김수동	김수영	김신영	김영자	김영재	김영준	호인걸	홍경성	홍민지	홍유선	홍혜경	황대만				
	김예래	김유성	김은경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황왕연	황용	황원철	황유성	황은선	황정환				
	김은진	김은혜	김은희	김인숙	김재근	김재영	황지원	그린피앤티	뉴유성병원센터							
	김재형	김정수	김중근	김중영	김주성	김지연	엠앤에프코리아(주)									
	김지현	김지환	김지훈	김진관	김진웅	김창범	오상호(이수비뇨기과의원)	오피스퀵엔하몰								
	김충만	김태현	김태희	김하린	김학기	김현택										
	김현업	김혜민	김혜정	김화원	김희	노연지										
	노영경	노현관	도훈파	류길환	문변영	문정숙										
문준호	문형곤	민병욱	민주영	박덕용	박민영											
박보현	박봉태	박상실	박상영	박상현	박석환											
박세림	박세용	박소라	박수경	박수빈	박승노											
박시원	박안나	박영재	박이용	박인걸	박인태											
박정환	박진솔	박찬영	박찬호	박천우	박춘명											
박태진	박형민	박혜정	방국희	배원선	배인귀											
백소연	사공희주	서동진	서태호	설화순	성영호											
성주철	성진기	손승완	손종서	손진화	송병덕											
송지섭	송진솔	송척호	신기혁	신명준	신미란											
신진경	안규현	안다솔	안토리	안효섭	양 칸											
오덕교	오수현	오지연	우영택	원용식	원형식											
유광운	유미나	유번림	유승수	유영철	유우진											
유현철	육전수	윤재성	윤지용	이경숙	이경희											
이규희	이금주	이나연	이동호	이동훈	이미란											
이만욱	이민호	이상기	이상민	이상현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상수	이상현	이수경	이수나											
이수현	이연옥	이영재	이영재	이영호	이용섭											
이유진	이은민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재석											
이재수	이재우	이재원	이재호	이정호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창석	이창휘											
이하승	이혁중	이현아	이형희	이혜연	이호영											
이화영	이효석	임보나	임선숙	임선영	임성빈											
임재영	임한삼	장경호	장미현	전성대	정계숙											
정구현	정기업	정기운	정다영	정달영	정성미											
정성훈	정승섭	정승형	정영권	정윤숙	정재호											

구분	회원명(가나다순)											
CMS 정기 후원회원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진오	정혜나	정현주	김갑재	김경화	김미현	김영현	김준식	
	조규섭	조성빈	조승휘	조옥주	조윤희	조정희	김재수	김혜정	박보현	백인남	브레이브걸스	
	조한승	조항민	조홍채	주영애	차종철	차형덕	팬 피아레스	손경화	심희진	원지선	이미선	
	채은석	최강민	최관호	최도래	최미월	최사빈	이미희	이혜리	조세미	홍정인		
계좌이체 정기 후원회원	최승관	최언화	최용혁	최유니	최은진	최철식	강인보	기도희	김도훈	김민정	김봉규	
	추대환	추세란	하세린	하종률	한소라	한송희	김정현	김진우	노규동	백승진	신용호	
	한순옥	한승철	한연숙	한원배	한일호	한경지	양수진	양승현	양철호	어해숙	오현숙	
	함정은	허란경	허미경	허지웅	현정희	현진	이현세	임명희	장영석	전도석	조동형	
계좌이체 일시 후원회원	황대만	황정환	황유성	황은선	황정환		최상철	최상필	최원정	최우석	한보석	
	한성심						한성호	한윤탁				
혈액암 환우 응원 프로젝트	류길환	좋은나무교회(최은숙)	김윤성	한일호			김가은	김명은	김연우	김예은	김지원	
	김유승	고정화	전병호	박은영	이성수	임병현	박예은	박주원	유진	유진영	윤소영	
	홍수민	심희진	주민정	보르케스요양			이소정(동양대학교)					
							이승연	최다빈(안동과학대학교)	최혜연	황윤주		
지로 후원회원	박승혁	임충성	최성주	현혜리								
해피빈 후원회원	유원영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www.kmdp.or.kr](http://www.kmdp.or.kr) > 후원 > 개인후원 신청 (정기 후원 혹은 일시 후원 선택 가능)

문의 02-737-5533, 안내 3



teoul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 조혈모세포기증 인식개선 캠페인, 터울과 함께 합니다.

“당신에게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되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터울 주식회사는 2019년 설립된 헬스케어 데이터 회사로  
2021년 10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터울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복약안내 서비스 필독>을 통해  
매달 10만명의 약국 방문 환자에게 조혈모세포기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방문하시면 “필독 약봉투” 인지 확인해 보세요!



필독 약봉투(복약안내문)는

✓ 크고 선명한 약품 이미지 ✓ 약품별 성분명 ✓ 약 처방에 따른 부족영양소

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환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약생활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필독은 전면 무료 서비스로 약국에 제공되고 있어 보다 많은 약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서비스 가입 및  
질병타케팅 광고 문의

필독 홈페이지  
[www.pilldoc.co.kr](http://www.pilldoc.co.kr)

전화 문의  
**02-6941-1938**

## 조혈모세포 기증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리에뜨는 실력있는 디자이너들이 함께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디자인하는 아리에뜨  
[ariette.co.kr](http://ariette.co.kr) | [ariette@ariette.co.kr](mailto:ariette@ariette.co.kr) | 02.332.1603



##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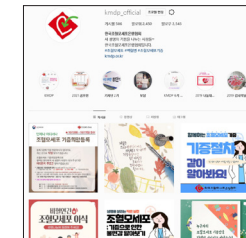
여러분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kmdp.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kmdp0311>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mdp\\_official](https://www.instagram.com/kmdp_officia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mdp0311>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 ①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녀
-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 ③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단체의 경우, 출장 접수 가능)
- ④ 문의 : 02-737-5533, 내선 112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증희망등록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  
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자만 가능)

- ①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https://kmdp.or.kr> → 우측 킷 메뉴의 정보변경 → 변경내용 작성 → 확인
- ② 전화로 변경하기 02-737-5533, 내선 112

###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 ① 헌혈증 기부 및 지원 문의 02-737-5533, 내선 114
- ② 보내실 곳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새 생명의 기쁨을

# 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



한국조혈모세포공여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